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미국, GMO, 캠페인, 유전자조작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미국, GMO, 캠페인, 유전자조작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美 천연건강협회, GMO 팩트체크 실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천연건강 연합, GMO 팩트 체크링 실시

미국 식품 관련 비영리 단체 미국 천연건강 연합(Alliance of Natural Health, USA) 이 유전자 조작(GMO) 식품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고 알리는 캠페인, 'GMO 팩트 체크링' 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천연건강 연합은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한 'GMO 라벨링(GMO Labelling)' 법안을 보조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GMO 의무 표시제(GMO Labeling Law)는 미국 51개 주에 있는 식품 및 유통 업체가 GMO 가 포함된 식품에 사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생산자는 알림성 문구, QR 코드, GMO 사용 여부를 알리는 로고(현재 제작되지 않음), 특정 전화번호 표시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코네티컷 등 인근 주로 이 법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 29일 오바마가 GMO 의무 표시제도 미 전역 실시에 최종서명을 하면서 해당 법안보다 좀 더 느슨하다고 알려진 버몬트 주의 법안은 폐기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몬산토, 뒤퐁 등 GMO 종자, 작물 생산 업체가 의무 표시를 피해나갈 구멍은 여전히 존재 한다. 전화를 걸거나 QR코드로 직접 소비자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선택지를 주어, 소비자들의 확인을 어렵게 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아울러 천연건강 연합은 GMO 기업들은 막대한 로비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며 "이번 캠페인은 GMO 옹호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 미국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덧붙였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현재 GMO 식품 라벨링 제도가 최종 승인되어 미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미 식품 의약국은 여전히 GMO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천연건강 연합의 GMO 팩트 체크링 활동 등, GMO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GMO 식품 사용을 중지하고 건강한 식품 트렌드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현재 미국 FDA 가 규정하는 GMO 식품 자율표시 규정이며, 세부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059098.htm>)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